

포스코대우, 우즈벡 안질환 환자에 '밝은 세상'

현지 주민 1800여명에게 무상 의료지원

포스코대우가 우즈베키스탄 안질환 환자에게 밝은 세상 선물했다.

포스코대우는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9일 동안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주립종합병원에서 국제 실명구호 기구인 비전케어와 함께 안질환 환자들을 위한 의료캠프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캠프 기간 동안 포스코대우는 백내장, 시력 저하에 시달리는 현지 주민 1800여명에게 무상 의료혜택을 제공했다. 그 중 1000여명에게는 무상 진료를 실시하고 150여명에게는 백내장 수술 등 안과 수술을 지원했다. 또 돋보기와 시력 교정용 안경 700여개를 제공했다.

포스코대우는 우즈베키스탄이 고온건조한 사막성 기후에 자외선도 매우 강해 안질환 환자가 많다는 점에 착안, 회사 면방번호이 위치한 부하라 및 페르가나 지역에서 2014년부터 의료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 혜택을 받은 지역 주민은 총 1만여



포스코대우는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주립종합병원에서 현지 안질환 환자들을 위한 의료캠프를 실시했다. /포스코대우

명에 이른다.

특히 매년 의료캠프에 분사 및 현지 법인 임직원 2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통역을 비롯 환자들의 진료와 안내를 돕고 있다.

한편 포스코대우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의

료지원뿐 아니라 아동교육센터 운영 지원, 무의탁 노인 및 고아원 지원, 대학생 장학금 지원 등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현지에 필요한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새로 나온 책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

행비/안재성 지음



한국 근현대사의 숨겨진 인물과 진실을 발굴해 다수의 평전과 노동·역사 소설을 집필해온 작가 안재성의 신작 장편소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가 출간됐다. 북한 노동당 청년간부로 한국전쟁에 참가했다가 포로로 잡혀 10년간의 수용소, 감옥 생활을 겪은 실존인물 정찬우의 수기를 바탕으로 전쟁의 참상을 생생하게 그린다. 북한 엘리트로 전쟁에 참여했다가 남한에서 전향한 정찬우는 남과 북 그 어디에도 소속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에 대한 그의 증언은 보다 객관적이며, 이 소설은 초국적의 정찬우가 바라보는 전쟁의 풍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찬우의 가족이 50년간 간직해온 수기를 우연한 기회에 입수하게 된 작가는 "지구상에 어떠한 전쟁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휴머니즘적 가치에 매료되어 소설화를 결심했다. 전쟁에서 비롯된 갈등이 여전히 한국사회를 지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잊혀진 전쟁의 시대가 되어가는 지금,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다시 묻는 소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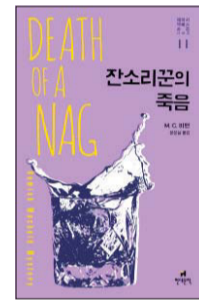
전쟁의 의미와 인간의 조건을 다시 묻는 절절한 기록.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어느 인간주의자의 일대기를 통해 우리는 지금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삶의 감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328쪽, 1만 4500원

/신정원 기자 sjw1991@

잔소리꾼의 죽음

현대문학/M.C.비턴 지음



스코틀랜드 북부에 자리한 가상의 시골 마을 로흐두의 유일한 경찰 해미시 맥베스의 좌충우돌 수사가 펼쳐지는 '해미시 맥베스 순경 시리즈 제 11권' '잔소리꾼의 죽음'이 현대문학에서 출간됐다. 전편에서 이별을 겪은 해미시가 상처를 치유하고자 떠난 휴가지에서 살인 사건에 연루되며 위기를 맞은 가운데 또 한 번의 이별이 찾아온다. 서로를 의심하는 동시에 로맨스 구도를 형성하는 주인공과 주변 캐릭터들의 모습은 이 시리즈만의 재미를 선사한다.

320쪽, 9800원

/신정원 기자 sjw1991@

코웨이 신입사원과 시각장애 봉사활동 펼쳐



코웨이 신입사원들이 시각장애인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다.

코웨이는 이혜선 대표이사와 신입사원 29명이 지난 1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코웨이는 지난 2009년부터 10년째 신입사원 입문교육 필수 과정으로 봉사활동

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날은 시각장애인 교육문화 지원 및 업무 보조 등에 나서 시각장애인용 전자도서를 입력·검수하고 시각장애 근로자의 헤드폰 포장 조립 작업을 보조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이 대표(왼쪽 두번째)가 신입사원들과 헤드폰 포장 조립을 돕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신점[神占] 운세 3월 19일 (음 2월 3일)

힐링운세 (www.healingunse.com) 060-800-8877

- 쥐** 60년생 한발 물러서는 것이 유리합니다. 72년생 고생 끝 좋은 일만 생기는 길입니다. 84년생 새로운 것에 도전하세요. 96년생 주관대로 밀고 나가세요.
- 소** 61년생 변화가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73년생 주변의 충고를 잘 받아 들이세요. 85년생 성공의 길이 보입니다. 97년생 막힐수록 돌아가세요.
- 호랑이** 50년생 때를 기다려 보세요. 62년생 구설수를 조심하세요. 74년생 사람을 가려가면서 사귀세요. 86년생 사업을 하는 귀하는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 토끼** 51년생 말 조심, 행동 조심하세요. 63년생 자만 하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75년생 질병에 주의하세요. 87년생 기회는 또 오니 걱정 마세요.
- 뱀** 52년생 초조해 할 것 없습니다. 64년생 허욕을 버리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76년생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88년생 다들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뱀** 53년생 오늘은 길한 날입니다. 65년생 약간 울적한 듯하지만 금세 기분이 전환됩니다. 77년생 마음이 안정되어 일에 집중이 잘됩니다. 89년생 거래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잘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 말** 54년생 금전운도 있는 날입니다. 66년생 다음날 안 좋은 영향을 받기 쉬운 날입니다. 78년생 상처를 입거나 귀한 물건을 잃어 버릴 수 있습니다. 90년생 오늘 하루는 주의하세요.
- 산** 55년생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도록 하세요. 67년생 집에 일찍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79년생 최악의 대흉일로 파고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91년생 뜻하지 않은 망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 원숭이** 56년생 관용을 베풀면 좋습니다. 68년생 세상을 혼자만은 살수 없습니다. 80년생 협조자가 생기니 일 처리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92년생 만사가 수월해지고 행운 따릅니다.
- 닭** 57년생 친구간에 말 조심하세요. 69년생 집안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세요. 81년생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93년생 행운이 가득한 하루를 보냅니다.
- 개** 58년생 경솔하면 손해만 따릅니다. 70년생 차근차근 계획하고 행동하세요. 82년생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94년생 성공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 돼지** 59년생 때만 기다리면 됩니다. 71년생 요즘 어려우니 장황한 계획은 미루세요. 83년생 기회포착을 요령 있게 하세요. 95년생 용돈이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친화운세상담 홍카페 10분 무료상담 이벤트!
홍카페 접속 후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어에 METRO 입력하면 10분 무료상담!!
타로, 연애, 심리 1:1 전화상담 홍카페
(www.hongcafe.com)

3	9			7	4
	8		7		6
7		5	8		1
		6			
3					5
5	4			3	6
	6		4		7
		1	2		
1	9		8		3

		1	2	4	9	5
		5	3			
	4			6	8	1
7						4
	9	4	6			
	5					7
6	8	4			5	
			1	2		
5	9	2	8	1		

스도쿠 정답

2	8	7	9	8	2	5	6	1
8	6	9	2	5	1	4	3	7
5	2	1	4	6	7	9	8	3
9	1	4	2	6	8	7	3	5
6	5	8	7	1	2	4	9	3
4	7	2	5	9	4	8	1	6
1	2	6	8	4	5	9	7	3
4	9	5	6	1	7	8	2	3
7	8	1	2	9	6	5	3	4
3	9	4	7	1	5	8	6	2
5	6	7	2	8	1	9	4	3

문제 제공 = 보너스

김상회의四季

영웅은 하늘이 내리는가?

필자는 가끔 생각한다. 역사를 통해 세기의 영웅으로 기억되는 인물들이 적지 않은데 그 중에 만약 알렉산더대왕이 서른 초반의 나이에 요절하지 않았다면, 나폴레옹이 워털루전투에서 지지 않았다더라면 세계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알렉산더대왕이나 나폴레옹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여러 해 동안 동로마 제국의 발칸 지방을 공포로 몰아넣은 훈족의 용맹한 지도자 아틸라가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과 결혼한 첫날 밤 죽지 않았다더라면 오늘날 세계의 역사는 그 방향과 틀이 매우 달라져 있을 수 있었으리라. 역사를 바꾸는 것은 반드시 하늘의 보이지 않는 의지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기울일 수 있는 선한 의지와 믿음, 그러한 신념과 노력이 바탕이 되어준다면 역사는 분명 더욱 많은 이들에게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주었으리라 믿는다. 그러기에 주역의 모든 괘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길흉을 예시하는 것을 뛰어넘는다. 천지자연을 포함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안정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주역이라는 역서가 존재하는 의미인 것이다. 조화와 균형을 갖출 수 있을 때야 만물이 서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이다. 아무리 영웅호걸에 못지않은 기량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때가 돕지 않고 시절 인연이 맞지 않으면 역사의 뒤안길에서 이름도 없이 스러져 가거나 아니면 역적의 이름을 들으며 구족이 멸문하는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남이장군 역시 출중한 가문을 배경으로 능력과 기량 뛰어났지만 역시 하늘 아래 두 용이 있을 수는 없는 법, 결국 역적무리로 낙인이 찍혀 비극적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다. 역사는 승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용쟁호투에 있어서도 역성혁명이 될지 반역하는 역적이 될지도 모두 운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 운기 역시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하늘이 돕는 것이라 보기에 성공한 역모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오죽하면 진시황의 사후 혼란해진 천하를 평정할 것처럼 보였던 항우는 사면초가의 황망함을 겪은 후,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 병사를 잘 쓰지 못한 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결국 항우의 한탄은 바로 하늘이 자신의 운을 돕지 않음을 탓한 것이다. 그러나 항우는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다. 자신의 힘과 기량만을 믿고 자만하여 덕으로 휘하를 다스리지 못한 것도 패인인 것을 후대의 사가들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칼이 지혜로 대치되는 문(文)을 이길 수 없음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미술, 그곳에 사람이 있다



홍경안 역
시사일과

어떤 장소나 공간 주변의 상태와 특징 등을 고려해 그 장소와 미술이 유기적 의미를 갖게 되는 미술이 '장소특정적미술'이다. 실제 장소와 개념으로써의 장소 자체에 주목하는 설치작품은 물론, 장소를 근간으로 컨텍스트(context)와 과정을 다루는 '퍼포먼스', 미술과 미술가들의 공공적 역할인 사회문제를 미술적 이슈로 삼는 '관계지향적미술', 그 문제들에 관객들의 적극적인 협업과 참여를 유도하는 '비판적미술' 등이 모두 장소특정적 미술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장소특정적미술'을 그저 특정한 장소나 공간과의 호흡 속에서 성립하는 미술로 보는데, 이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정이다. 글자 그대로 특정 장소에 존재하도록 제작된 미술품을 뜻함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오브제로서의 '미술'과 '장소'라는 분별적, 독립적 명사로부터 벗어나 점차 개념적으로 확장되어 왔음이 사실이며, 동시대에서 '장소특정적미술'이란 특정 장소와 상황을 미술이 수용함으로써 그 장소와 상황에 '비판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까지 일컫는 뜻이다.

국내에서 '장소특정적미술'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 시기는 1995년경이다. 조형예술품(조각, 벽화, 회화 등)의 설치가 의무화된 당시만 해도 '장소특정적미술'은 공공미술의 영역에 머물렀다. 때문에 미술을 공공공간에 가져다 놓은 것만으로도 도시 환경을 갱생하고 인간화한다고 여겼다.

하나 모든 공공미술작품이 아름답거나 랜드마크로써 역할 하는 것, 불특정 다수의 익명의 삶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었다. 공공의 공간은 누군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잠시 빌려 쓰는 것인데, 수준 낮은 작품들 때문에 대중이 감내해야 할 피해는 의외로 컸다.

특히 작품과 장소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중시했던 작업들 가운데서도 동일한 작품이 재생산되면서 공공미술의 전위성이 자본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와 같은 현상은 새로운 담론에 불을 지폈다. 이때 발생하게 된 개념이 바로 '공공성'의 실현이다.

공공성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의 기억과 쟁점, 삶의 맥락을 수용한다. 공공공간의 주인은 시민이며, 공공의 공간을 대여하여 사용하는 미술은 그 자체로 공공성에 관한 책임을 지녀야 한다. 그것의 올바른 성과가 공공성의 실현이다.

그러나 한국의 실정은 다소 다르다. 공

동체를 빌미로 한 기관의 선전화와 도구화로써 기능할뿐더러, '장소'의 중요성을 언급하지만 결국에는 미술관으로 회귀하는 미술의 부르주아성, 특정되거나 지정된 장소와 공동체가 단지 미술가의 작업 재료로 대상화되는 공동체의 소재화가 드물지 않다. 더구나 의미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이 유명해져 결과적으로 미술의 자본화를 개입시키고 거주민의 거주공간과 삶을 황폐화시키는 부작용도 크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장소특정적미술'은 무엇인가. 실제 사람이 참여하거나 협업 혹은 관계맺음이 제한적이지 않은 미술, 미술가와 미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이슈들과 사람을 연계하는 미술, 공간과 장소에 실존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유관하게 행위 되는 미술 등이다.

만약 미술이 그 장소에 거주해온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주제인 '사람'을 담아내는 데 있어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그 주체가 비호응적인 상황이라면 우리에게 미술은 무엇인지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한다. 물론 미술이 당장 먹고 살아가는데 급급한 우리에게 빵을 주거나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푸집이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인간가치의 회복과 소통의 매개로 작동한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무시할 것도 아니다.

/미술평론가·칼럼니스트



저축은행중앙회, 우수영업인 시상식 개최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16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제2회 저축은행 우수영업인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어려운 영업 환경 속에서도 서민·중소기업 등 지원에 헌신적 노력을 기울인 저축은행 직원에 대해 감사하고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왼쪽에서 일곱번째)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금호아시아나, 11회 제11회 한국어말하기 대회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7일 일본 도쿄 한국문화원에서 '제 11회 금호아시아나내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08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11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오사카·후쿠오카·가고시마·아오모리·돗토리 등 일본 각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707명이 응모해 일본 고교생들의 한국어와 한국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본선 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26명이 참가해 한국어 스피치, 한국어 촌극(2인1조), 일본어 에세이 등 3개 부문에서 경합을 벌였으며 최우수상 4명, 우수상 7명, 특별상 4명 등 총 15명이 본상을 수상했다. /금호아시아나



동양생명, 2018 연도대상 시상식 개최
동양생명은 지난 15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류진룡 사장을 비롯 임직원과 수상자 187명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 선 장금선 명인(52·경기사업부 새중앙지점)이 FC부문에서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왼쪽)류진룡 동양생명 사장, (오른쪽)장금선 명인.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임원, 소아암 아동 위해 항균키트 전달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15일 여의도 본사에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공동으로 소아암 환자를 돕기 위한 항균키트 호호상자 1000개를 제작하여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PCA생명 통합을 기념해 미래에셋생명 임원 35명이 봉사자로 참석했다. 호호상자는 면역력이 약한 소아암 환자들에게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소모품인 항균 물품들로 구성됐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6년간 총 6600명이 넘는 소아암 환자에게 약 3억6000만원 규모의 항균키트를 전달했다. /미래에셋생명

카톡 안되는 '열공폰' 학생만 필요할까?



기지수첩
김나인 (산업부)

일명 '열공폰(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소소한 입소문을 타고 있다. 무제한 데이터 시대에 전화, 문자와 같이 기본 기능만 담은 휴대폰이다. 데이터와 와이파이를 막아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 사용도 차단했다. 기본 기능만 추리고 나머지는 싹 떨어냈다.

일부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업체에서 수험생이나 중장년층을 공략해 내놓았는데 출시 이후 월 평균 2000명 내외가 가입하는 등 꾸준하게 인기를 끌고 있다. 공부에 방해가 되는 카톡이나 게임은 이용할

수 없지만, 전화·문자 등 최소한의 연락을 할 수 있고 전자사전·MP3 등 꼭 필요한 기능만 탑재했으니 수험생들은 공부에 집중할 여력이 마련된다.

답을 수 있는 최대한의 애플리케이션과 기능을 빼곡하게 탑재한 스마트폰이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마당에 열공폰의 선전 소식은 무엇을 의미할까. 열공폰은 비단 수험생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다. 카톡과 같이 과도한 개방성을 지닌 플랫폼과 다양한 기능들은 오히려 과부하와 선택장애, 퇴근 후 업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라는 말이 있다. 퇴근 후에 카카오톡 등으로 상사의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SNS) 확산으로 항시적 업무환경이 조성

됨에 따라 논의되고 있는 권리 개념이다. 독일 노동부는 2013년 업무 이후 상사가 직원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프랑스는 노동개혁법안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추가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중 85.5%가 퇴근 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열공폰은 오히려 공부에 집중하려는 수험생보다 스마트폰과 떨어진 삶과 관계, 여기에 '열공'하고 싶은 일반인에게 더 필요할지 모른다. 열공폰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누리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는 사회가 오기를 기다려본다.

/silniki@metroseoul.co.kr

인사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정책실장 배병준 △ 보건 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윤태호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류근혁 △ 대변인 김현주 △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부장 박금렬 △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장재혁
- ◆국토교통부 △ 과장급 전보 △ 항공산업과장 박명주
- ◆중소벤처기업부 △ 과장급 전보 △ 벤처혁신기반과장 정기환 △ 과장직위 승진 △ 서울지방중소벤처

- 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배창우
- ◆농촌진흥청 △ 과장급 승진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장 이강진
- ◆조달청 △ 서기관 승진 △ 시설총괄과 오덕기 △ 전자조달관리과 정길용
- ◆국민권익위원회 △ 과장급 임용 △ 민간협력담당관 강선아 △ 과장급 전보 △ 경제제도개선과장 김정대 △ 한국법제연구원 고용유지 정책팀
- ◆한진 △ 전무B 승진 △ 신영환 △ 이준구 △ 상무보 승진 △ 서민석 △ 이법렬 △ 권옥민
- ◆유한양행 △ 부사장 △ 약품사업본부장 조옥제 △ 경영관리본부장 박종현 △ 전무이사 △ 약품사업본부 김상철 △ 생산본부 이영래 △ 약품사업본부 이병만
- ◆대한항공 △ 임원 승진 △ 전무A 노삼석 △ 전무B 황인중 △ 상무 조모란 조장희 김철 장영재 최민영 주우남 권영목 이종열 남기승 송명희 김정수 존 에드워드 잭슨 △ 상무보 노성재 권혁삼 유영석 박태훈 이종혁 서상훈 정현보 정호윤 신성철 정경철 이명대 이장훈 장수병 김우현 임창근 김준환
- ◆새마을금고중앙회 △ 상근이사 △ 신용·공제대표

- 이사 권광석 △ 전무이사 김기창 △ 지도감독이사 황국현
- ◆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감사 이병률 △ 석좌교수 김호동 △ 석좌교수 송호근 △ 약학대학교무부학장 성상현 △ 보건대학원 학생부원장 윤충식 △ 치의학대학원 교무부원장 권호범 △ 보건진료소장 김지원
- ◆부산MBC △ 광고사업부장 박희문 △ 보도국장 탁은수 △ 보도국 편집제작부장 남휘력 △ 창사60주년기획단 및 (사) 문화도시네트워크 사무총장 파견 류시호 △ 기획심의부 심의위원 이종훈
- ◆조선영상비전 △ 대표이사 김홍진

부음

▲심점순씨 별세, 전병현(영진전문대 교수)·병기(자영업)·병용(매일신문 구미김천혁신도시사업장 기자)·병규(회사원)·일(아수화학 재직)씨 모친상 = 18일 오전 7시 45분, 대구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특실 501호, 발인 20일. 053-956-4445

청호나이스, 기술과학 그림·글짓기 대회

청호나이스는 오는 4월1일 경기 화성에 위치한 청호인재개발원에서 '기술과학 그림·글짓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청호나이스는 지난해까지 총 11회에 걸쳐 '자연사랑 전국 어린이 그림대회'를 개최해왔다. 올해엔 대회의 주제를 기술·과학으로하고 자사의 광고모델인 전 NASA 우주비행사 '데리 버즈'와 함께하는 '기술과학 그림·글짓기 대회'로 치른다. 그림대회의 경우 전국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생이 참가할 수 있다. 글짓기 대회는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대학생 포함)



로 나눠 심사를 진행한다. 대회는 대상인 청호나이스 회장상 외에도 최우수상, 우수상 등 다수의 수상작을 선정해 상장 및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또 모든 참가자들에게 문구세트를 참가상으로 제공한다. 신청접수는 이달 29일까지로 선착순 300명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청호나이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bada@

metr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 집 규
인쇄인	(주)중앙일보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3
2002년 5월 31일 정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100206	
제3917호 / 0011호	

이대, 올 교사임용 사상최다... 화학·영어 등 10명중 1명

(324명)

올해 324명 합격, 매년 증가세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서
부문별 수석·차석도 차지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혜숙)가 2018학년도 교사임용 합격자 324명을 배출해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부문별 수석과 차석을 차지하며 최우수 교원양성기관의 명성을 재확인 했다.

18일 이화여대 사범대 등에 따르면, 이화여대 사범대와 교육대학원, 일반대학 교직원과정 출신 324명이 2018학년도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이화여대 출신 교사임용 합격자 수는 2016학년도 262명, 2017학년도 281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올해 중등교사의 경우 212명, 초등교사 49명, 유치원교사 36명이 합격했고, 비교과(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 교사는 27명이 최종 합격했다. 특히 중등부문 화학, 생물, 영어, 미술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건물 전경. /이화여대

교육에서는 전체 합격자 중 약 10%가 이화여대 출신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수석과 차석의 영광도 이어졌다. 2016~2017학년도 2년 연속으로 서울 지역의 유아·초등·중등특수교육 수석을 차지한 데 이어 2018학년도에도 특수교육과 출신 이은별 씨가 서울지역 초등특수

교육 수석을 차지했고, 같은 학과 박윤아 씨는 유아특수교육 차석을, 과학교육학과 졸업생 김지에 씨는 서울지역 화학교육 수석, 최사랑(과학교육) 씨는 인천지역 지구과학교육 수석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지역에서는 음악교육 부문에서 음악교육학과 출신 민지혜 씨와 같은 학과 권

하영 씨가 각각 수석과 차석을 휩쓸었고, 조윤주(수학교육) 씨와 유한미(미술교육) 씨는 각각 수학교육 차석과 미술교육 차석을 차지했다. 이밖에 안성원(미술교육) 씨는 충북지역에서 미술교육 부문 수석으로 합격했다.

이화여대 사범대는 지금까지 4차례(1998, 2004, 2010, 2015년)에 걸쳐 실시된 국내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최대 교원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최근 4년간 교원양성 선도사범대학 지원사업에서 최대 규모 재정 수혜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2016년에는 사립대학 중 유일하게 창의교육 선도 교원양성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화여대 사범대는 “앞으로도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추구하고 미래지향적 사범대학의 모델을 만들어 나갈으로써 종합적인 전문 교원양성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장영달 우석대 총장이 지난 16일 제13대 총장 취임식에서 학교기를 휘날리고 있다. /우석대

“실용주의대학으로 발돋움” 장영달 우석대 총장 취임

4선 의원 출신 장영달 우석대 총장이 실용주의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장 총장은 지난 16일 오후 교내 문화관에서 열린 제13대 총장 취임식에서 “우석대학교를 다산사상으로 무장한 국내 최고의 개혁적 실용주의대학으로 발돋움시키겠다”며 “우석대 출신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높은 인격과 뚜렷한 인간으로서의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지역 국회의원 과 전직 도지사와 장관은 물론 교육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취임식에는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을 비롯해 권미혁·이종걸·인재근 국회의원, 김도중 원광대 총장, 김인규 경기대 총장, 김종량 한양대 이사장, 영화배우 문성근, 가수 전인권 등 각계각층 인사 500여 명이 대거 참석했다.

서창훈 이사장은 임명사에서 “장영달 총장이 그동안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열정과 업적, 다양한 활동을 통해 쌓은 경륜과 출중한 능력이 우석대의 새 도약을 이끄는 탄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용수 기자

44개 대학 여교수회 ‘미투 운동’ 지지 선언

전국 44개 대학 여교수회가 18일 ‘미투(#metoo)’ 운동을 지지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미투 피해자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국내 대학 평교수 조직이 수평적으로 연대해 특정 사회운동에 대해 지지 선언문을 공동으로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대 여교수회가 이날 발표한 ‘미투는 우리 사회의 구조와 체질을 바꾸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공동 선언문에는 강원대, 경기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명지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전국 44개 국공립대와 사립대 여교수회와 일반 교수들이 참여했다.

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은 한국 사회에 묻혀 있던 성폭력, 성희롱, 성차별의 문제가 미투 운동을 통해 걸로 드러났다면 미투운동이 사회 전반을 개혁하는 운동으로 진화해 간다면 한국사회 성장을 위한 값진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선언문에서 이들은 “쏟아져 나오는 미투(#metoo)와 위드유(#withyou) 목소

리는 오랫동안 누적된 성차별과 일상화된 여성 비하라는 구조적 문제를 표출하고 있다”며 “우리사회의 노동 문화·조직 문화의 후진성, 구성원 간 상호 존중의 부재, 권력의 오남용 등은 서로 연관된 미투운동의 본질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미투가 폭로나 고발에 그치지 않아야 하며 정파적 대립으로 인해 운동의 의미가 왜곡돼 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선정적인 폭로 경쟁 속에 묻히거나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하는 다름의 산물로 축소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대학 내 성폭력 실태에 대해서도 “학교는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자기 성장을 도모하는 환경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폭력과 성희롱, 성차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운동이 대학 사회에 변혁을 가져오도록 우리부터 더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미투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특히 정부는 이 기회를 지속가능하고 실행가능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용수 기자



‘봄이 왔어요~’

18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열고 있는 튜립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튜립을 보며 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게 맞는 교육지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교육부 ‘교육지원 한 눈에’ 개통
중위소득 50% 이하 626만원

유아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중위소득 50%(225만원) 이하 가구는 연간 626만원까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초등학생도 학용품비(연간 5만원)를 신규 지원 받게 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각 정책별로 해당자가 확인해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곳에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면 지원이 가능한 교육지원 정책과 금액, 신청 시기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정책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복지와 지원정책을 통합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교육지원 한 눈에’(http://eduone.moe.go.kr)를 19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학생이나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에 대해, 수요자가 정책지원 대상 포함 여부와 신청 시기 등을 정책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온라인 ‘교육지원 한 눈에’ 서비스는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등등 학생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금	세부내용
급식비	연 평균 63만원	3500*180식
방과후 수강권	연 평균 60만원	-
부교재비·학용품비	(초)연 평균 116만원 (중)연 평균 162만원	-
PC 1대	평균 120만원	가구당 1대
인터넷 통신비	연 평균 23만원	가구당 1회선

*시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PC설치 등 일부 항목 제외.

/자료=교육부

맞춤형 교육지원 정보 ▲신청기관 바로 가기 ▲알림서비스로 구성해 자신의 조건을 입력하면 조건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혜택정보를 제공하고, 신청 시기 알림도 제공하는 등 수요자 편의성을 높였다.

맞춤형 교육지원 정보의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일반인 등 자신의 신분과 다문화학생이나 장애학생, 탈북학생 등 가구상황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등 소득수준 등을 입력하면, 관련된 교육지원 사업명과 지원금액, 지원시기, 신청시기,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월 가구소득 225만원 이하 4인 가족에 유아 1명과 초등학생 1명이 있다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와 초등학교 급식비, 방과후수강권, 학용품비 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최대 626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같은 소득 수준에서 고등학생 1명과 대학생 1명이 있을 경우, 고등학교 급식비, 방과후수강권,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비와 대학교 국가장학금(1유형) 등 연간 최대 982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서울시교육청 배움 느린 학생 학습부진 돕는다

성동구 금호고, 1·2학년 영어·수학
‘맞춤형 기초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수학 맞춤반이 등장했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과외를 시키는 반은 많았지만,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을 대상으로 주요 과목을 맞춤 교육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관내 금호고등학교(교장 조호규)가 19일부터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초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8

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배움이 느린 학생들에게 학습 부진 요인별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최저 수준의 교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성취감을 경험하게 하고 성취감이 학습동기로 이어져 학생 스스로 학습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에서는 ▲학습이력 관리 ▲학생 성취 수준에 따라 개별 지도를 하는 영어·수학 맞춤반 운영 ▲학습두려움(도우미-배우미) ▲학습부진 학생 자기 긍정성 회복 활동 등이 운영된다. /한용수 기자



2018 metro

100 PLUS FORUM

2018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

100세시대 자산 불리기와 재테크

2018년 3월 28일 (수) 08:00 - 12:00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신문 대표이사

[축사]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강연]

<주식 재테크 전략>

이채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사장

<부동산 재테크 유효할까>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프리 IPO 엔젤투자>

장은현 스타셋인베스트먼트 대표

[패널토론]

<좌장>

김택동레이크투자자문 대표

<패널>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김현기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이윤학 BNK자산운용 사장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 상무

행사개요 및 문의

일시: 2018년 3월 28일 (수) 08:00 - 12:00

장소: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

주최: 메트로신문

후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록: 이메일 및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접수 (사전등록 무료) forum@metroseoul.co.kr
(성함, 소속, 직책, 연락처 필수 기입)

문의: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 사무국 02-721-9826, 9841



사라진 밤.



/씨네그루(주)카타리미디어 지금 만나러 갑니다



/롯데시네마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손님

/그린나래미디어

봄 극장가에 부는 女風... '센 언니들이 돌아왔다'

배우 김희애, 손예진, 고현정이 봄 극장가에 훈훈한 女風을 몰고 왔다. 믿고 보는 명품 배우들이 선택한 작품은 각각 '사라진 밤' '지금 만나러 갑니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손님'이다. 짜임새있는 탄탄한 시나리오에 흠 잡을 곳 없는 완벽한 연기, 거기에 상대 배우와의 케미까지 폭발하니 주말, 혹은 퇴근 후 영화관으로 달려가지 않을 수 없다.

김희애는 영화 '사라진 밤'으로 3년만에 관객을 만났다. 지난 7일 개봉한 '사라진 밤'은 개봉과 함께 박스오피스 1위는 물론, CGV 골든에그 지수 97%라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2014년 한국에서 개봉한 스페인 스릴러 '더 바디'를 국내 정서에 맞게 각색한 작품이며, 국과수 사체보관실에서 아내의 시체가 사라진 후 시체를 쫓는 형사(김상경),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남편(김강우), 그리고 사라진 아내(김희애) 사이에서 벌어지는 하룻밤의 예측불가능한 이야기를 그린다.

원작이 복수에 중점을 뒀다면 '사라진 밤'은 시체를 찾아가는 과정에 집중해 차별화했다. 그 과정에서의 스틸감과 반전은 관객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긴다.

김희애는 부와 명예를 가진 대기업 회장이자 남편에게 살해당한 후 사라진 아내 역을 맡았다. 도

김희애 '사라진 밤'
스릴러로 3년 만에 스크린 컴백

손예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일본소설 원작으로 돌아온 '멜로퀸'

고현정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손님'
이진욱과 달콤쌉싸름한 '어른 로맨스'

도하고 우아한 외모 뒤에 감춘 비밀스럽고도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연기 변신을 했다. 비중에 상관없이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한 김희애의 내공이 느껴지는 영화다. 긴장감과 쫓겨간 반전까지 고루 갖춘 웰메이드 스릴러 '사라진 밤'은 올봄, 추적 스릴러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다.

'멜로'하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배우 손예진은 소지섭과 함께 '지금 만나러 갑니다'로 관객의 가슴을 축축히 적셔줄 전망이다.

정통 멜로 '클래식'과 '내 머리 속의 지우개'로 진정한 멜로 퀸에 등극한 손예진은 이번 작품으로 또 하나의 인생 캐릭터를 예고한다.

그동안 꾸준히 멜로 영화를 제안받았던 손예진이 선택한 작품은 '지금 만나러 갑니다'다. 영화는 일본 소설가 이치카와 다쿠지의 동명 소설과 영화를 원작으로 했다. 세상을 떠난 아내가 기억을 잃은 채 돌아온다는 판타지적인 설정이 특징이다.

1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빈자리를 그대로 남겨둔 채 아들과 함께 일상을 채워가는 남자 우진(소지섭) 앞에 장마가 시작되는 여름날, 비가 오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믿기 힘든 약속을 남겼던 수아(손예진)가 기적처럼 돌아오면서 벌어지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았다. 원작과 스토리의 결은 동일하지만, 한국 정서에 맞게 대사나 상황들은 다르게 각색했다.

영화의 주된 내용은 소지섭과 손예진의 로맨스다. 두 사람의 절절한 눈빛과 힘이 맞는 연기 호흡은 진한 애정신이 없어도 실제 연인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 돌아온 멜로 여신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불거진 드라마 '리턴'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배우 고현정은 영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손님'으로 돌아온다.

지난 부산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로테르담국제영화제, 브뤼셀국제아시아영화제 등 해외 유수영화제의 호평을 받으며 개봉 기대감을 높인 이진욱,

고현정 주연의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손님'은 오래된 인연의 설렘과 떨림을 그린, 그야말로 '어른 로맨스'라 할 수 있다. 고현정에게는 '미쓰GO' 이후 6년만에 스크린에 복귀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영화는 한때 소설가를 꿈꿨으나 지금은 대리기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남자와 촉망받는 소설가이지만 도무지 새로운 글이 써지지 않는 여자의 우연한 재회를 담았다.

드라마 '선덕여왕' '여왕의 교실' '디어 마이 프렌즈' 등 다양한 장르에서 카리스마있는 연기력을 입증한 배우 고현정은 차기작에 매진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소설가의 섬세함을 소화했다. 거기에 이진욱과 오래된 연인이자 헤어진 연인, 그리고 다시 만난 연인으로 연기 호흡을 펼쳐 한계없는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두 남녀의 현실적인 상황과 우연한 재회가 삼청각을 비롯해 서촌 곳곳을 배경으로 그려질 예정. 서울을 배경으로 한 도심 로맨스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서정적인 멜로나 로맨틱 코미디와는 또 다른 매력에 담긴 달콤쌉싸름한 어른 로맨스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손님'은 4월 12일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시와 사진이 있는 아침

에피덴드롬

송얼 송얼 웃음 가득,
어우러져서 꽃입니다
빛나서 희망입니다

/고흥근 작

'올림픽 2관왕' 최민정, 세계선수권도 2관왕 달성

쇼트트랙 1500m·500m 금
2년 만의 왕좌 탈환 '청신호'

2018 평창동계올림픽 2관왕에 빛나는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최민정(성남시청)이 201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에서 또 한 번 2관왕에 올랐다.

최민정은 18일(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대회 여자 1500m 결승에서 2분23초351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평창올림픽 1500m 금메달리스트인 최민정은 세계선수권대회 1500m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이종목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 '쌍두마차' 심석희(한국체대)는 최민정에 0.117초 뒤진 2분23초468을 기록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맏언니' 김아랑(고양시청)은 아쉽게 4위에 올랐다. 2분23초609를 기록한 김아랑은 김부탱(캐나다·2분23초592)에게 0.017초 차이로 동메달을 내줬다.

최민정은 500m 금메달에서도 금빛 질주를 이어갔다. 특히 평창올림픽 500m 결승에서 실격 판정으로 은메달을 놓쳤던 그는 한 달여 만에 세계선수권 500m를 제패하며 웃음을 되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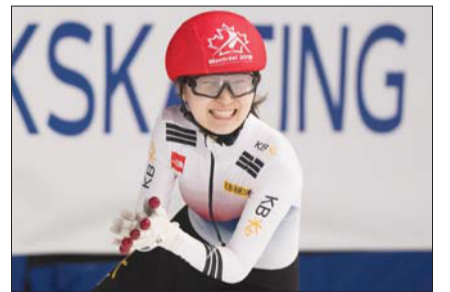
2015년, 2016년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에 빛나는 최민정은 지난해 이 대회 여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 '쌍두마차' 심석희(한국체대)는 최민정에 0.117초 뒤진 2분23초468을 기록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맏언니' 김아랑(고양시청)은 아쉽게 4위에 올랐다. 2분23초609를 기록한 김아랑은 김부탱(캐나다·2분23초592)에게 0.017초 차이로 동메달을 내줬다.

최민정은 500m 금메달에서도 금빛 질주를 이어갔다. 특히 평창올림픽 500m 결승에서 실격 판정으로 은메달을 놓쳤던 그는 한 달여 만에 세계선수권 500m를 제패하며 웃음을 되찾았다.

2015년, 2016년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에 빛나는 최민정은 지난해 이 대회 여자



최민정이 세계선수권대회 500m에서 우승한 뒤 기뻐하고 있다. /AP연합뉴스

500m에서 실격 당했고, 1500m에서는 넘어지는 불운을 겪으며 대회 3연패에 실패했다. 그러나 올해는 초반에 금메달 2개를 휩쓸며 2년 만의 왕좌 탈환에 청신호를 켰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오늘의 날씨

3월 19일

음력: 2월 3일

수도권 날씨

6 ~ 13°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해돋이 / 06:38 | 해질 / 18:43

연천 4/15

동두천 5/15

가평 5/11

파주 4/15

서울 6/13

양평 6/12

인천 5/12

수원 6/12

용인 6/12

평택 6/11

스포츠 한줄 News

- ▲ 김도연(K-water, 사진)이 2018 동아일보 서울국제마라톤 42.195km 풀코스 2시간25분41초에 뛰면서 한국 마라톤 기록을 새로 썼다. 앞선 기록은 1997년 권은주가 세운 2시간26분12초로, 김도연은 21년 만에 한국 신기록을 31초 앞당겼다.
- ▲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이 19일 오전 10시 45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평창선수촌 국가광장에서 해단식을 연다.
- ▲ 한국 대표 왼손 투수 김광현(SK와이번스)의 정규 시즌 등판 날짜가 25일 문학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로 확정됐다.

김광현은 지난 14일 NCD아디노스전에서 컨디션 점검을 마쳤다.

- ▲ 2018 평창동계올림픽 '톱7' 최다빈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앞두고 "즐기고 오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 ▲ 여자컬링 대표팀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은메달 후 첫 대회인 2018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에서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대표팀은 19일 체코, 덴마크와 예선 2, 3차전에 나선다.
- ▲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2018 MLB 시범경기 캔자스시티 로열스전에 4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2경기 연속 장타를 터뜨렸다. 타율은 0.355(31타수 11안타)로 소속 끌어올렸다.
- ▲ 애런 헤인즈를 잃은 프로농구 서울 SK가 KBL에 새 외국인 선수 제임스 메이스의 가승인 신청을 했다.

/김민서 기자



[금융] KEB하나은행, 사업다변화로 글로벌 강화 06



Life

[유통] 신세계그룹 파트너사와 채용박람회 개최 11



숲속에 온 듯, 비밀의 화원인듯... 외국인도 “윈더풀!”

Q 르포 '봄에 더 인기' 도심속 화원 플라워카페

꽃과 함께 여유를 즐기고 싶은 봄이 왔다. 하지만 수도권에는 개화 시기가 오지 않아 이달 말까지 꽃 구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멀리 나들이를 떠나 기엔 시간적 여유도 없고 비용도 부담스럽다. 이럴 때 도심 속에서 화원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커피 한 잔과 봄 햇살을 만끽할 수 있는 곳, '플라워카페'다.

◆가드닝 플라워 카페, '벌스가든'

향기로운 꽃내음은 벌들을 유혹하고 사람마저 정취에 빠지게 한다. 지난 14일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에 위치한 연남동 플라워카페 '벌스가든'에는 평일 오후의 여유를 찾으러 온 방문객들로 가득했다. 수업을 마치고 찾아온 여대생들, 데이트를 위해 찾아온 커플들, 단체모임까지 다양한 방문객들이 카페 곳곳에 앉아 꽃구경을 하며 담소를 나누느라 바빴다.

특히 벌스가든의 한쪽에 자리한 꽃벽은 알록달록 꽃들로 수놓아져 사진을 촬영하려는 방문객들로 인기가 가장 높았다.

최민영 매니저는 “꽃 벽에는 너무 많은 양의 꽃이 들어가 가능할 수가 없다”며 “워낙 고객들이 좋아해 컨셉에 따라 작업할 드라이플라워의 종류, 색상들을 정하고 작업을 하면서 양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카페 내 테이블은 일본, 중국 그리고 동



플라워카페 '벌스가든'의 계산대와 전경.

플라워카페 2030·관광객에 인기 다양한 차와 함께 꽃·식물 판매도

남아 관광객으로 가득 채워졌다.

이날 카페를 방문한 일본 관광객 미호(36) 씨는 “일본의 테마카페에 비해 커피가격도 저렴하고 꽃까지 볼 수 있어 좋다”며 “이번 여행에서 여러 테마의 장소를 가봤는데 가장 여행코스로 적합했다”고 설명했다.

벌스가든에는 다양한 꽃 말고도 대형 식물들이 카페 입구에 자리 잡고 있어 마치 깊은 숲속에 들어온 기분까지 들게 한다. 이는 뻥뻥한 빌딩 숲 속에 갇혀있던 현대인들이 잠시 자연을 만끽하며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도 충분했다.

마음에 드는 꽃이 있다면 구매도 할 수 있다.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 위치한 2호점 벌스하우스에선 커피와 함께 선물용 꽃도 판매하고 있다. 1층에 꽃집이 따로 있어 카페에서 마음에 드는 꽃과 식물을 직접 주문이 가능하다.

최 매니저는 “주로 봄이 되면 손님들이 꽃을 더욱 많이 구매한다”며 “이 시기에는 형형색색의 꽃을 일상의 공간에 채워두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벌스가든의 김성수 대표는 인터뷰 중 남다른 식물 사랑을 보였다. 그는 “부모님께서도 남대문 꽃도매상가에서 33여 년 가량 꽃집을 운영하셔서 꽃에 대한 애정이 크다”며 “또 어려서부터 어머니께 꽃꽂이를 배워 꽃을 다루는 일이 즐겁다”고 밝



블룸스토리 매장.

/유재희 기자

이에 블룸스토리 강양기 대표는 “장미와 넝쿨을 이용해 신비로운 비밀의 화원 컨셉과 지친 현대인들이 자연 속의 힐링 공간에서 쉬도록 숲의 컨셉을 구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문한 고객 중에는 20대 여성들이 가장 많았다. 그들은 특별한 공간에 들어온 만큼 매장 실내장식과 디저트 등을 사진 촬영하느라 분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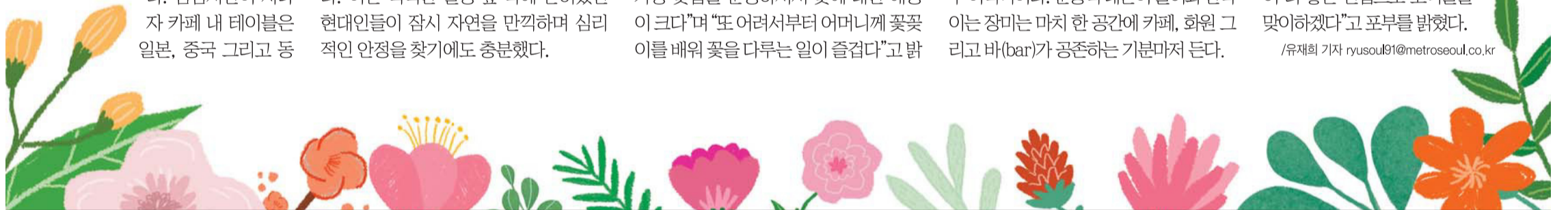
이날 친구들과 블룸스토리에 방문한 최진희(22) 씨는 “일반 카페는 솔직히 공카족이나 일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아 힐링이 어렵다”며 “특별한 공간에 어와서 꽃도 보고 맛있는 디저트 먹어 기분이 전환된다”며 밝게 웃었다.

블룸스토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함은 매장 실내장식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자리에 앉아 스케치북 메뉴판에는 직접 그려진 메뉴 그림과 설명이 있다. 이에 강 대표는 “수제 청을 기반으로 하는 음료들과 퓨전티, 조리풍라떼와 같은 이색 음료가 많다”며 “고객님들의 메뉴 이해를 돕고자 카페 매니저가 직접 색연필로 메뉴를 그리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종업원이 갖다 주는 듯한 음료와 디저트는 마치 화분처럼 아름답게 꾸며져 손님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또 사소한 아이템인 쟁반과 테이블 위 촛대도 꽃과 풀로 장식돼 오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강 대표는 “봄이 되어 많은 분들이 꽃구경과 커피의 여유를 즐기러 오셔서 제마음도 즐겁다”며 “비밀의 화원에 이어서 더 좋은 컨셉으로 고객들을 맞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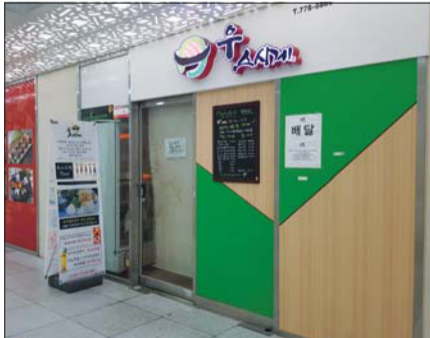


품질 좋은 쌀에 숙성회 올려... 직장인 입맛 사로잡은 초밥

맛있는 메트로 2호선 을지로입구역

우스시계

점심특선, 주변 직장인들에 인기 저렴한 가격에 초밥 즐길 수 있어



점심특선.

*주소: 서울 중구 을지로 지하 88 을지스타몰 옥층 1-4호 *영업시간: 오전 11시 30분~오후 9시 30분(월~금), 브레이크타임 오후 2시 30분~5시.(토·일·공휴일 휴무)

서울 지하철 역 중 가장 비싼 이름값을 하는 곳은 어딜까.

바로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을지로입구역은 지난해 지하철 1~8호선 유상역명명기 사업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27개역 중 계약금(3년 기준) 3억8100만원으로 가장 비싼 이름을 소유한 역 1위 자리에 올랐다.

을지로입구역 외부 풀사인과 내부 승강장 역명판·단일 노선도 등에 이름을 구입한 'IBK기업은행'이 병기되고 있는 이유다.

역 주변에는 IBK기업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기업 및 대형 오피스빌딩, 롯데백화점, 보신각, 서울광장, 일본정부관광국, 한국은행, 한국은행 화폐금융박물관, 명동성당 등이 위치하고 있다. 1일 승차인원은 약 10만5000명 정도다.

을지로입구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까지 이어진 총 3.8km 길이의 지하상가 을지스타몰에 위치한 '우스시계'는 인

근 직장인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잡는 수제초밥전문점이다.

2014년 문을 연 이곳은 점심시간마다 가성비 높은 초밥을 맛보기 위해 줄을 길게 늘어서는 풍경이 연출된다.

점심시간 1위 메뉴는 초밥과 우동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점심특선(9900원)'이다.

손님들에게 인기 있는 초밥 8점(광어·

연어·새우·문어·송어·2·참치·도미포는청어)과 반우동이 한 세트에 나온다.

식사를 주문하면 간단한 샐러드와 따뜻한 죽이 에피타이저로 먼저 나오고 잠시 후 주인공인 초밥과 우동이 등장한다.

초밥에 사용되는 생선은 손질 후 숙성 과정을 거치는데 종류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광어의 경우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의 시간을 거친다.

생선과 함께 초밥의 주된 재료인 쌀의 품질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편이다. 현재는 서해안 간척지에서 생산되는 신동진 쌀을 사용하는데 일조량이 많아 쌀알이 굵고 밥맛도 뛰어난 것이 특징이라고.

“깔끔하면서도 부담없는 점심을 먹고 싶을 때 이곳을 찾는다”는 직장인 남승현 씨(46)는 “인근에서 스시를 먹으려면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곳은 저렴하면서도 내실 있게 초밥과 스시를 즐길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함께 식사를 마친 한재민 씨(40)는 “주문과 동시에 초밥을 만들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하지만 그만큼 신선도 높은 초밥을 맛볼 수 있어서 좋고, 함께 제공되는 우동 맛도 일품”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두 번째 인기 메뉴는 '알탕(8000원)'이다. 생선뼈를 우려낸 육수에 찹쌀이 일품인 민태알, 고니, 연두부, 숙작, 팽이버섯 등이 들어가고 숙성 양념과 고춧가루로 맛을 낸다. 얼큰하면서도 시원하고 부드러운 맛에 즐겨 찾는 손님들이 많다.

세 번째 인기메뉴는 초밥 10점에 왕새우튀김, 반우동으로 구성된 '초밥정식(1만4000원)'이다. 점심특선에 초밥 2점과 왕새우튀김을 추가한 것으로 넉넉한 양의 식사를 원하는 손님들의 주문율이 높은 편이다

오후 5시 이후에는 퇴근길 혼잡속 및 소규모 팀 단위의 회식 장소로 다시 분주해진다.

좌석은 16석 규모로 점심시간에는 예약이 불가하지만 저녁에는 예약을 통해 보다 편한 이용이 가능하다.

저녁 모임의 경우 정해진 예산을 미리 얘기하면 메뉴판에 없는 코스 형태로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도 있다.

/김미영 객원기자 may424@hanmail.net



신한금융투자 인도네시아 IB Staff | Novita Emilda

신한과 인도네시아는 같은 꿈을 꿉니다

내일의 인도네시아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신한의 앞선 금융시스템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는 新韓人.입니다